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의안 번호	1240
----------	------

제안연월일: 2006. 12. 14 .

제안자: 김성은 의원 외 8인

1. 주 문

내자동 29번지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종로구에는 2,000년도에 총 17개의 육교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06년말 현재 내자, 신설육교 등 총 6개소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음.

종로구 내자동 29번지~13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내자 육교는 폭 4m, 연장 38.1m, 연면적 152.4㎡로써 1992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고 육교계단이 협소하고 가파르게 되어있어 불편함.

광화문사거리도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만들어 통행하고 있고, 4대문 안인 경복궁역 인근에 육교가 있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와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내자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임.

※ 참고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재난예방조치)

내자 육교 철거 건의안

종로구에는 2,000년도에 총 17개의 육교가 있었으나 최근 12월 10일에 평창동 육교를 철거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06년 12월 현재 내자, 신설육교 등 모두 6개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종로구 내자동 29번지~13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내자 육교는 폭4m, 연장 38.1m, 연면적 152.4㎡로써 1992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노후된 상태입니다.

내자육교는 경복궁역과는 50m 정도로 가까우며, 내자육교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청운·효자·사직동의 주민과 시각장애인 학교인 서울맹 학교와 서울선화학교 학생 등입니다.

이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 중 노인 인구수는 3천여 명에 달하며,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매번 높은 육교를 오르내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자동·내수동 주민 자녀들이 필운동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로의 통학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인근 중구에 소재한 덕수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시정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매우 많은 광화문사거리도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만들어 통행하고 있고, 4대문 안인 경복궁역 인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자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7. 2.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